



보험계약사항

보험기간: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1년간, 정구시호 3년)

피보험자: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 가입절차: 별도 가입 절차 없음

보험금 청구 문의·신청

피보험자(피해자인)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보험사에 청구

보험사: KB손해보험 접수·문의처: T. 02-6930-5103 F. 0505-137-0051 고양시콜센터: 031-909-9000

보장범위 및 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고양시민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중 사고
- 도로 통행중 자전거로부터 온 충격하고도 무관한 거래사고
- 자전거를 직접 운행중(탑승자 포함) 사고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망사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5세미만자 제외) / 1인당
사고후유장애	자전거 운전 중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1인당
상해진단유료금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피급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월 이상 입원시 15만원 추가 지급	진단 4주 이상~ 진단 8주 이상 15만원~55만원
자전거사고 발급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에 하여 확정판결로 배급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변호세선인 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에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처리비용	고양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상에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집의를 하여할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14세미만자 제외)
자전거사고 배상책임(개인책임)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300만원 한도 / 1인당 (자기누당 20만원)

고양in 행복인

GOYANG
CITY
MAGAZINE

2021
JULY

07
VOL.341



CONTENTS

04 고양 톨보기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을
생각하다

06 사정 ZOOMIN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08 고양 역사 산책

흥도동 공립과원고개 이야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고양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고양시 일산서구 석이동에 소재하고 있는 송포 백송은 옆에서 보면 부뿔살처럼 퍼져 역삼각형으로 보이며, 다른 백송에 비해 나무껍질이 희지 않은 편이다.



Contents

2021 July vol.341



꿈꾸는 고양

- 04 고양돌보기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을 생각하다
- 06 시장 ZOOM IN
경기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 08 고양역사 산책
흥도동 공말과 설고개 이야기



함께하는 고양

- 10 가을 만한 고양
고양시 김태중 기념관
- 12 소설기자가 간다
자연친화공간으로 새 단장을마친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 14 고양시인터뷰 1
가수 이범학 인생 2막 이야기
- 16 고양시인터뷰 2
플러트 아티스트 박현희 님
- 18 우리 동네 이야기
- 22 실버라이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일 님
-웰빙을 위한 장애문화
- 26 꿈꾸는 청소년
고양동실학교놀이숲
- 28 아동·청소년 정보
마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단



소통하는 고양

- 30 백과사전
구독서비스의 모든 것
- 32 이달의 문화행사
- 34 시장·유관기관 정보
- 40 도서관 정보
- 42 의정소식 / 건강상식
- 44 카툰 /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장터
- 46 고양 사랑방 / 문예아당
- 48 정책퀴즈



Cover Story

7월호에는 자연친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프로그램' 안에 일산호수 공원에서 일상을 즐기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과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고양시는 언제나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월간지 <고양소식>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양시청 홈페이지 → 농무부고양 → 시청소식지 → 구독신청 및 주소연결
• 전화 및 이메일 신청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전화 031-8075-2093 팩스 031-8075-4904 이메일 gysosic@korea.kr

발행인 고양시장 이재준 편집인 언론홍보담당관 윤경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약령지 고양시청로10(주교동)
편집위원 김민정/김은정/노정민/방재현/오문서/윤재진/이정현/이승철/이광중/임태성/정동일/정현호
발행일 2021년 7월 1일 이메일 gysosic@korea.kr 기획 디자인 디에이치(주)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을 생각하다

코로나19로 택배 주문 건수가 늘어났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지간한 물건이나 음식 등은 전부 배달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달이 늘어난 만큼 배달종사자는 급증한 배달 건수를 소화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고양시는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글 이경한(고양소식 편집위원)



배달물량늘어난만큼 위험도 높아

비대면으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지만, 배달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주문물량이 늘어난 만큼 배달종사자의 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일 뉴스에선 배달종사자들의 과로사 등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양을 오늘 하루에 다 처리하기 위해 배달종사자들은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앱을 이용한 주문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1건이라도 더 많이 배달할수록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일면서도 위험한 질주를 한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의 30%가 배달종사자일 정도로 배달종사자의 안전 문제는 매우 취약하다. 지난 3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세상을 떠난 18~24세의 노동자는 32명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흡

그런 까닭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헬멧 등 안전장비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고, '요기요' 등 플랫폼업체는 면허증과 헬멧 등을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다. 여전히 배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9조(지원) 1항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

이를 통해 관내 약 2,400명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음식 배달 1,488명 및 퀵서비스 926명)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누구에게 지원하나?

우선 지원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배달종사자와 직접 배달을 하는 사업자다.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고양시 일자리정책과로 영수증을 접수하면 1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및 배달종사자 확인 서류(플랫폼 등록 출력물, 배달 관련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 확인서 등) 혹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시기는 7월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기간 2021년 12월 20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지급은 매월 1일과 15일 예할 예정이다. ☎

※ 배달종사자보다 배달노동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지만, 본 고에서는 고양시 관련 조례를 준용해 배달종사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양시노동권익센터(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6층)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행시기 7월 예정 ※ 보건복지부 협의 후

안전장비 야광조끼, 헬멧, 보호대 등
지원금액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제시하면 10만원 이내 현금 지급

신청방법 일자리정책과(노사협력팀)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구입영수증,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 배달종사자인지 확인 가능한 서류(택 1)
- 종사자: 플랫폼 등록 출력물, 배달 관련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확인서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오토바이 등록증 등
- 기타 배달 종사자(사업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1-8075-3562)





(상) 경기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내부, (하)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정문

영화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창작 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지난 5월 12일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은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엠시티타워에서 문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을 찾아가 보았다.

글 사진 최영진(경기문화산업과 주무관)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작가 집필공간

영화 산업의 근간인 시나리오 작가지원 필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계를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 이래 한국 영화산업 전체 관객 수는 2억 명을 지속적으로 넘었고 매출액은 2조를 넘어 세계 7위의 극장매출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영화산업 기결산에서 극장매출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하였고 기획·제작·상영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영화산업은 양극화로 산업의 불균형을 걱정했다. 대작영화의 부침이 심해지고 중·저예산 영화, 독립영화시장은 무너져 왔다. 일명 '팔리는 영화만 만든다'는 기획 편중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고착하며 독창적인 기획의 영화는 점차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근간인 시나리오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이다.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집필 공간 제공

고양시는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설립 공모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었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은 입주작가 10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집필실과 회의실, 휴게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집필실은 약 3평의 공간으로 책상, 의자, 수납장, 소파 등 작가를 위한 기본 가구가 갖춰져 있다. 회의실은 작가들이 작품 회의 및 외부 미팅에서 주로 사용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한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회의실 및 휴게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에 입주하는 작가들은 매월 창작지원금과 작업공간을 지원받는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2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입주작가 모집에 도내 거주하는 신인·기성 시나리오작가들이 응모해 10명이 선발되었다. 이 중 고양시민은 5명이다.

시나리오에 현실성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입주한 작가들에게는 매월 강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유명 촬영감독 등 영화계 전문가 특강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작가들의 소재개발을 위해 강연을 진행한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프로파일러, 탈북민, 사이버수사대 등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초청되어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입주 마지막 달에는 완성된 시나리오의 사업화를 위한 영화사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매칭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작가는 "작가는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공간에 입주해 혼자만의 시간,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작가는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이 저보다 경력이 많은 것 같다. 그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서 자극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입주작가에게는 EBS다큐영화제, DMZ다큐영화제의 관람권이 주어지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강사 연계사업도 지원된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문화가 진화하고 있지만,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무대에서 공연을 보는 생생한 체험은 대체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의 입주작가들이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 9층 엠시티오피스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개소식 모습



스토리하우스 내부 공간 구성

그늘이 있는 길 홍도동 궁말과 쉽고개 이야기

이번 호는 고양시 덕양구 홍도동에 속한 그늘 길과 궁말(宮村)마을을 소개한다. 이 길을 홍도동 주민들은 '홍도동 누리길'이라 하며 그늘이 많은 구간은 별도로 '도당산 구간'이라 부르고 있다. 홍도동 궁말을 중심으로 궁말생태교, 홍도동 도당재 누리길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글 사진 정동일(고양도시발전위원회)



궁말 쉽고개 모습

원흥 도래울마을 건너편에 있는 궁말

오늘 소개하는 궁말마을과 원흥 도래울마을 사이에는 권율대로가 지나고 있다. 이 권율대로는 행주산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해서 통일로까지 이어지는데, 행주대첩의 명장 권율 도원수의 이름을 붙여 권율대로가 되었다. 통일로에서 자유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궁말마을이 있고 조금 더 가면 궁말생태교가 만들어져 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궁말생태교는 도래울마을의 녹지와 궁말마을의 녹지를 연결해 주고 있다. 자연친화적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궁말은 예전에 이곳에 왕의 작은 궁(별궁)이 있어 붙여진 마을 이름이라 한다. 마을 주민들은 궁말에서 도내동 은못이마을로 연결되는 쉽고개 아래가 옛 궁궐자리라 한다. 지금은 창고와 집들이 들어서 옛 모습을 볼 수 없으나, 주민들은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 기와 파편과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궁말마을을 지나는 숲속, 홍도동 도당산 누리길 구간

도래울 마을 의장대 공원길에서 도래울로 넘어 잠시 오르면 녹지 공원이 있는데 일명 도래울 도당산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궁말마을 방향으로 약 200m 정도 가면 권율 대로상의 궁말생태교가 있다. 이 길 구간의 큰 소나무 아래에서 도당재를 지냈다고 하여 도당산 구간이라 부르고 있다. 대부분이 그늘 길로 되어 있고 한적한 구간이 많아 좋은 곳이다. 도래울마을에서 홍도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걷다 보면 우측의 작은 마을이 궁말이 된다.

궁말생태교를 지나는 숲길과 함께 흙길을 걸으면 오래된 길에 시멘트 포장된 궁말 쉽고개가 나온다. 이 쉽고개는 크게 높지는 않지만, 궁말마을에서 오르다 보면 제법 숨이 가빠진다. 고개를 넘을 때 잠시 고개 정상에서 쉬었다간다고 하여 쉽고개라 부른다. 일부 주민들은 은못이마을로 연결되어 있어 은못이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궁말 쉽고개에서 보이는 아름다운 하늘

쉽고개 정상에서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적어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다. 특히 궁말 쪽에서 보는 모습이 예뻐서 차량 통행이 적어 비교적 안전한 고개가 쉽고개다. 차량으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데 비해 오르고 내리는 좌우는 경사가 심해 안전줄이 만들어져 있다.

궁말마을의 뒤면 숲길을 경유하여 원흥동, 성사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이 홍도 도당산 누리길이다. 이 구간에는 재미있는 강아지 바위, 성황당 돌탑 이야기, 뒷골 이야기 등이 전해지고 있어 책자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누리길의 앞에 위치한 궁말마을도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빌라, 전원주택, 유치원, 다세대주택 등이 마을에 들어왔고 권율대로 건너편으로는 25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어 옛 궁말마을과는 큰 비교가 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재미있는 땅이름과 가보지 않은 작은 길들이 있다. 길을 걸으며 힐링하고 옛이야기를 들으며 고양시에 보다 큰 애정을 가져보자.



1 숲속에는 그늘 길과 흙길이 만들어져 있다
2 궁말 주변의 궁말산과 그늘 숲속

존경하는 인물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념관 고양시 김대중 기념관

데이빗 버터워스 씨는 그의 부인과 함께 6월 14일 개관한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버터워스 씨는 영국 요크 출신으로 헹게스터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으며 부인과 함께 고양시 백석동에 살고 있다.



글 사진 데이빗 버터워스 부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사저는 현재 고양시가 맡아서 보존하고 있다. 덕분에 사진으로만 볼 수 있던 사저를 방문할 수 있고 사저는 지금은 박물관 기능도 하는 기념관이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보존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한 인간에 대한 세심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한 국의 애국자, 국제 외교관 그리고 평화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으며 훌륭한 여성이었던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의 존재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밀 통로가 많은 이 집의 내부는 비밀 요원에게 쫓기는 듯한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집과 전시물을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정문을 걷다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심은 아름다운 식물들과 관목들이 가득 한 평화로운 정원을 발견하게 된다. 인동초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기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꽃을 피운다. 그래서

이 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정원에서 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집에 발을 들이면 국내외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 1층 거실에 소파와 함께 놓여있는 테이블과 그 옆 방의 긴 식탁은 주요 인사를 만나던 정치적 무대로 설명된다. 1층 거실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양에 있을 때 IMF 총재를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거실과 1·2층 방들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층 서재에는 옛날 슬라이드 필름을 돋보기로 보면서 유럽,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여행했던 젊은 시절의 멋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독특한 슬라이드 필름의 원본을 통해 우리는 로마와 같은 곳에서 잘 치려 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상 깊은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우리는 그의 일기에 있는 상세한 메모와 엄청난 양의 책에 감탄할 수 밖에 없다. 안방에서는 그의 종철모와 깨끗한 신발과 같은 개인적인 기념품을 볼 수 있다.

지하에 세세하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 내용은 1·2층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가 견뎌낸 격렬한 투쟁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역경의 바다'라 불리는 지하 공간에 들어서면, 방문객은 작은 의자에 앉아 투쟁 납치, 그리고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이 지하 공간은 부정적인 힘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을 표현한다. 구석에는 지하 실로 들어가는 탈출구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원래 건축 계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당시 탈출구의 입구는 책장에 가려 숨겨져 있었다 한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의 조명은 현재 안전한 수준으로 밝으나 그전에는 조명도 없었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찰에 의해 쫓기는 삶을 보낸 적도 있어, 그가 만약 지하실에 피신해야 했다면 칠푼 같은 어둠 속에 숨죽인 듯 있었을 것이다. 복도를 따라가면 그가 투옥되었던 청주교도소 감방이 재현되어 있다. 깔끔한 손글씨로 뻑뻑하게 적힌 그의 편지들은 그의 투쟁의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 전 '대통령의 창문'이라는 방은 지하실과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 밝은 전시실의 분위기는 희망을 강조하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뤄낸 뛰어난 업적을 감상할 수 있다. 대통령의 상징인 금빛 봉황이 출구 앞에서 빛나고 내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와 만남을 기록하는 사진도 있다. 마지막 방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둘러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림을 볼 수 있으며 이는 가치 있고 추천할 만한 여행 코스에 적합한 마무리다. [▶](#)

A respectful and thought-provoking
memorial to a great man

A Visit to President Kim Dae-Jung Residence Memorial in Goyang



The former residence of Kim Dae-Jung in Goyang has now been preserved for the nation. But rather than just being a snapshot view of the house in which he lived, we discover something which is so much more than a museum. It is a perceptive and sensitive appreciation not only of the man, but also of his significance as a politician. Here we can sense the Korean patriot, the international diplomat and peacemaker at work and we can also feel the presence of a great woman, his wife. Furthermore, we can imagine the family man visited by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yet juxtaposed against this, the house with its many escape routes, also gives us a sense of a man hunted by the secret service. Through observation of the living quarters and through carefully chosen exhibits, we can appreciate a remarkable life in the face of adversity.

Walking through the gates, the visitor finds a peaceful garden with numerous beautiful plants and shrubs which were planted by Kim Dae-Jung and Lee Hee-Ho. Honeysuckles flourish, appropriately enough for Kim Dae-Jung: a plant which can overcome difficult conditions to bloom in all seasons. Perhaps the great man and

his wife rested in the garden but entering the house one thinks more of a man meeting important politician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 the main reception room, we see the armchairs around a table and the dining room is described as 'a political stage for distinguished guests'. This reminds us of how, whilst in Goyang in 1998, he met the IMF president.

All rooms in the living quarters are faithfully preserved, but thoughtful extra touches add to the experience. In his study, fascinating personal Kodachrome slides of his travels as a young man around Europe, America and Mexico can be observed through a microscope. In the distinctive and impressive Kodachrome color we observe a dapper Kim Dae-Jung in places such as Rome. In the same room, we can marvel at the detailed notes in his diary and the sheer quantity of books. Nearby, in the master bedroom, we see such personal memorabilia as his fedora hat and immaculate shoes.

In cleverly nuanced displays, enhanced by excellent display boards, there is a contrast between the basement and the first floor. The basement is symbolic of the intense struggle he endured. Entering a dimly lit room called 'sea of adversity', the visitor can watch a video of his struggles, kidnap, and persecution. The darkness seems to symbolize the struggle against negative forces. In the corner is an escape hatch into a cellar, which significantly is not recorded on the original building plans. At the time the entrance was concealed by a bookshelf. In this cramped space light is now at the minimum safety level. At the time there would have been no light. Kim Dae-Jung had spent a life hounded by security forces and if he had to take refuge in the cellar it would be in the pitch black. Further along the corridor, is a recreation of his minute Cheongju prison cell. The display of letters written in prison, in neat handwriting, is a nice touch and highlights further the sense of struggle.

Climbing up to the first floor we notice a marked contrast to the basement in the room 'the President's window'. It is said that through darkness there is light and the separate display rooms on this level are bright which emphasise hope and we can appreciate the enormous achievements of the man who has become President. The golden phoenix, the symbol of the President, shines outside the room. Inside, we see images of a man with a significant international reputation meeting Nelson Mandela and as the recipient of the Nobel Peace Prize. Finally, the last room symbolizes the journey with a painting of Kim Dae-Jung surrounded by doves - a symbol of peace and the achievements of a truly remarkable man and a fitting end to a rewarding and recommended visit. [▶](#)

자연친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고양시의 대표 명소인 일산호수공원의 랜드마크, 인공폭포가 자연친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인공바위를 걷어낸 자리에 자연석, 꽃, 나무 등을 배치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진입로도 개선했다. 심미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를 찾았다.

글 사진 손진광(고양시 소셜기자)



새롭게 단장한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인공폭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다

새로 조성된 인공폭포는 폭 88m, 높이 4.8m~8.5m이고 주 폭포 3개소와 2단 폭포 2개, 계류(시냇물) 27로 조성되었다. 주 폭포 3개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북한산의 세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만경대를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다짐들로 울퉁불퉁했던 기존 방식을 바꾼 '무장애 진입로'로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직접 가보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었다.

사진과 기사로 먼저 만나보았던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를 직접 만나 보니 더욱 웅장함이 크게 다가왔고, 호수와 주변의 꽃, 나무, 풀과도 조화를 잘 이루는 느낌이었다. 시민들은 시원하게 내려오는 인공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멋진 포토존에서 각자의 추억을 찍었다.

인공폭포의 가동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 3시 30분부터 9시였는데, 6월부터는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이 추가되었다. 오전 이른 시간에도 좋고, 낮에 더위를 식혀 가는 것도 좋지만 야간 폭포를 바라보며 일산호수공원의 야경을 만끽하는 것도 좋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47개의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 야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별길 닿는 대로 즐기는 나만의 나들이코스

일산호수공원은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한 곳을 둘러볼 수 있어서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를 즐길 때 공원 내 몇 군데씩 코스를 짜서 이용하기 좋다. 이번에는 인공폭포와 그 주변을 코스로 둘러보았다.

고양 국제 꽃박람회에서 진행되는 '고양시민 참여정원에 많은 고양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제안하고 참여한 시민 참여정원이라 더욱 뜻깊다. 올해 상반기 고양시민 참여정원은 4월부터 진행했는데, 6월에는 전시 기간이 지나서 전시 후 남아있는 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고양시민 참여정원을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물의 앞쪽으로 예쁘게 조성되었던 플라워 북카페는 현재 고양시 안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예쁜 꽃도 만나면서 책도 보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플라워 북카페와 가까운 곳에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도 위치하고 있다. 고양 평화통일 교육전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임시휴관 중이고,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은 작년 말 운영을 종료, 리모델링을 통해 '고양시 종합예술 창작소(가칭)'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새벽장터, 자전거수리 등 다양한 이용거리가 가득

좀 더 부지런히 주말 아침을 맞이한다면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장터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다. 올해 11월 28일까지 토·일요일 오전 6시~9시에 꽃전시관 측면 광장에서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장터를 만날 수 있다. 우천 시에는 행사가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면서 곳곳에서 '호수가 보이는 작은 도서관'도 만날 수 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꺼내어 즐기는 독서시간은 힐링 그 자체다.

내년 11월 6일까지 공사 예정인 한울광장의 새로운 모습도 정말 기대된다. 대형 평판 불록 포장, 그늘막 바닥분수, 실개천과 일산호수공원 글자 조형물까지 더 많은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예쁜 포토존을 열려 만나보고 싶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호수의 경관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새로이 단장한 인공폭포! 여름에 더욱 싱그럽고 푸르른 일산호수공원을 방문해 힐링의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



일산호수공원

일산호수공원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저도 고양시민입니다” 가수 이범학 인생 2막 이야기

“내 사랑 굿바이 굿바이~ 어디서나 행복을 바라는 내 마음은~”

1991년 <이별 아닌 이별>이란 노래로 혜성처럼 등장 원칠한 외모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심을 사로잡으며 돌풍을 일으킨 가수 이범학. 하지만 이후 이범학의 모습을 TV에서 자주 볼 수 없어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백마 화사당을 방문한 이범학님을 만나 인생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사진 방재현(고양소식 편집위원)

방재현(이하 방) : 안녕하세요? 고양소식지에서 나왔습니다. 가수 이범학 씨 맞으시죠?
이범학(이하 이) : 네, 안녕하세요? 이범학입니다.

방 : 지금 카메라 들고 혼자 멘트하던데, 무슨 촬영인가요?
이 : 고양시 유튜브 방송에서 브이로그를 찍자고 해서요. 고양 시민들께 제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방 :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멘트를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던데요. 역시 방송을 많이 해봐서 그런가 봅니다. 촬영장소를 백마 화사당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 백마 화사당은 저희 시절에는 굉장히 유명한 장소였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가끔 여기 와서 파전에 막걸리 먹고 치도 마시고 했던 추억이 있는데, 고양시가 화사당을 복원했던 얘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에 와봤습니다. 여기 LP판 중에 마침 제 음반도 있어서 흡족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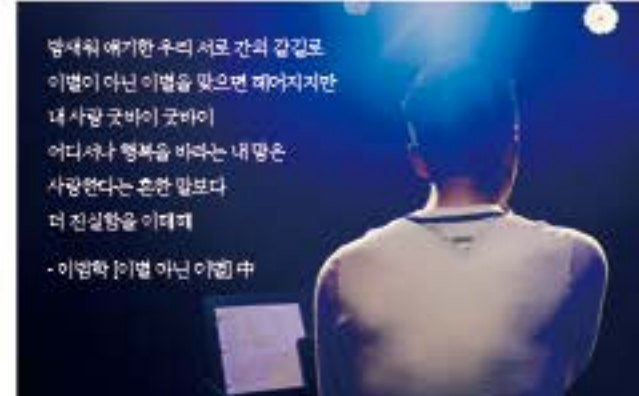
방 : 이범학 씨 하면 <이별 아닌 이별>이란 노래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인기가 엄청났죠?
이 : 어느 날 눈 떠보니 벼락스타가 돼 있었어요. TV와 라디오를 틀기만 하면 제 노래가 흘러나오고 음반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어요. 결국 KBS 가요톱텐 5주 연속 1위를 거머쥐었죠. 당시만 해도 가수들이 비주류보다 가창력으로 승부하던 때였는데, 제가 요즘으로 치면 아이돌 스타일이었나 봐요. 노래와 외모 둘 다 되는 가수라고 추켜세우며 많이들 사랑해주셨습니다.

방 : 그렇게 인기 많은 스타였는데, 1집 <이별 아닌 이별>, 2집 <아름의 거라> 이후 TV에서 자주 볼 없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나요?
이 : 당시 소속사와의 부당 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공백이랄 할 만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섭외 요청은 들어왔는데, 완성도 높은 앨범을 들고 복귀하고픈 마음에 쉽게 응하지 못했거든요. 대신 DJ·뮤지컬·연극·음악감독·배우 등으로 영역을 넓히다 보니 TV로 인사드릴 기회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방 : 이범학 씨 하면 발라드 가수 이미지인데, 트로트 앨범도 낸 적이 있네요?
이 : 바이브 윤민수 씨가 트로트 곡 <이대발>을 만들어 줬어요. 나이를 먹으니 트로트가 좋아지기도 하고 이미지 변신 차원에서 새로운 장르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으로 2012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스터 트롯’에서 김호중 군이 이 노래를 불러 화제가 됐어요. <이별 아닌 이별>도 FT아일랜드, SG워너비 같은 쟁쟁한 후배들이 리메이크해줘서 젊은 세대들도 제 노래를 알더군요.



1991년도 <이별 아닌 이별>을 부르는 이범학을 차 KRS.로도대영진



방 : 가수 활동과 병행해서 음식점도 운영한다고요? 직접 서빙도 하고 친절하게 손님 응대하는 이범학 씨를 목격한 분들이 많아요.
이 : 일산대화동 기로수길에서 해물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 아내가 원래 공연 기획자였는데 기획자든 가수든 비수기를 건디기 위해서 고정수입창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업을 할까 고민하다 요리 잘하는 아내를 믿고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는데 창업한 지 벌써 8년이나 지났네요.

방 : 현재 고양시에 살고 있죠? 원래 서울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고양시민이 되었나요?
이 : 고양시에서 오랜 기간 살아온 아내가 이곳에 정착하길 바랐어요. 아내 의견을 존중해 고양시에 집도 얻고 음식점도 내게 됐네요. 벌써 10년 정도 됐는데 여러모로 살기 좋고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방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어떠세요?
이 : 저도 어려움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 손님도 줄고 관리비 내는 것조차 버거워 장사를 계속할까 접을까 매일 매일 갈등합니다. 저처럼 고민하는 소상공 사장님들이 많을 텐데, 다 같이 힘내서 이겨내자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방 : 끝으로, 최근 근황과 앞으로의 활동계획 들려주세요.
이 : 음식점 운영도 하고 신곡 준비도 하면서 분주히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TV보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시대인 것 같아 유튜브 채널 <이범학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인조 밴드 동네사람들과 라이브 쇼를 기획했는데, 좋은 노래도 들려 드리고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 팬 여러분과 소통할 생각입니다. TV를 통해서도 자주 찾아뵙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유리병 속 작은 정원이 주는 힐링의 메시지 플랜트 아티스트 박현희 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종종 주변의 소소한 것들을 놓치기 마련이다.
감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계절은 바뀌고 신록의 푸르름은 더욱 선명해지지만
그러한 변화들을 알아챌 새도 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삼인지도 모르겠다.
플랜트 아티스트 박현희 님이 식물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조병우



플랜트 아티스트 박현희 님

코로나시대의 힐링 아이템이 된 '식물'

그가 플랜트 아트를 시작한 것은 정말 우연한 계기였다. 다육식물을 좋아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려고 시작했던 일이 어느새 작업이 되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제 가게를 연 지 두 달 남짓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종종 왜 요즘 같은 불경기에 창업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식물이 주는 힐링의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 팽배한 요즘,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행복감과 힐링의 요소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해요. 여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바로 '식물'이라고 생각했구요. 실내생활이 길어지면서 '플랜테리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만큼 우울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말로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도해볼 적기라고 판단했어요"

식물과 함께 호흡하는 일

'플랜테리어'란 '플랜트(Plant, 식물)'와 '인테리어(Interior, 실내 장식)'의 합성어로, 집안 곳곳에 식물이나 화분으로 포인트를 주는 새로운 인테리어 트렌드를 말한다. 자연친화적이면서 내추럴함이 꾸준한 관심사인 요즘, 식물은 심리적 안정감과 심미적 기능을 두루 갖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간과 환경의 구매를 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플랜트 아

트로스는 테라리움(밀폐된 유리그릇, 또는 입구가 작은 유리병 안에서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일)이나 루트글라스(인도네시아 바다 깊은 곳에서 나온 과목의 모양에 맞추어 만들어진 유리용기 안에 식물을 배치하여 재배하는 일) 등이 있다. 조화를 이루어 '작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식물의 종류도, 구성도 각기 달라 마치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유리용기 안에 식물을 넣어두면 금방 시들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관리가 쉽고 튼튼하게 잘 자라는 장점이 있어요. 오래된 잎은 지고 또 그 자리에 새순이 나는 자연의 생리를 이 작은 유리용기 속에서 확인할 때마다 식물의 강인한 생명력에 감탄하곤 해요."

식물과 함께하며 스스로를 아끼는 시간

녹색의 식물이 주는 에너지는 그의 일상을 좀 더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바꾸어놓았다.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작품을 감상하듯 식물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며 '멋있다', '힐링 된다'는 말을 들려줄 때 큰 뿌듯함을 느낀다.

"보다 많은 분들이 식물을 만지며 스스로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 우울감을 조금이나마 떨쳐버릴 수 있다면 더욱 보람될 것 같아요. 직접 작은 정원을 만들고 꾸미는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이 플랜트 아트의 가장 큰 매력이나까요? 초급자도 시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으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하고 힘든 시기, 집안에서 힐링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그 시작은 플랜트 아트가 어떨까.



매장을 가득 채운 루트글라스 작품

네 줄 타 기

1인 1악기를 연주하고픈 행신 '할쭈마'

글 사진 원숙(네줄타기 회원)



* 행신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이 네 개인 악기를 아시는가? 바로 '우쿨렐레다 네줄타기는 우쿨렐레를 좋아하는 중장년층 주부들의 공동체이다. 1인 1악기를 연주하며 좀 더 맛있는 아쭈마 아니, 할머니가 되고 싶은 작은 소망이 모여 네줄타기 모임이 만들어졌다.

우리 네줄타기는 우쿨렐레를 좋아하는 마을주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다. 다수가 신입회원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내를 가지고 연습에 임하면 그 결과는 달콤하다. 초보적인 실력이지만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힐링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고로 난 '목로주점'이라는 곡을 연주하며 그러한 체험을 했다. 직접 연주한 곡을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어 단체 채팅방에 올려보았지만, 이렇다 할 칭찬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열렬히 호응을 보내준 이는 바로 딸아이였다. 아이가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나가 있을 때 녹음하여 보내주었는데 친구들은 물론 외국 친구들도 '너희 엄마 멋지다'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장 시냇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마을공동체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사실 좀 우려가 있었다. 회원들이 지루해하진 않을까,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지 등. 하지만 기우였다. 명강사를 초빙해서 그런지 다들 강의에 집중했다. 강의를 듣고 난 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마을이 되길 꿈꾸어보았다. 이런 자세라면 이번 달 예정 중인 마을의제 워크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다.

네줄타기는 이번월부터 좀 더 바빠질 예정이다. 화정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낭독콘서트에서 연주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 뮤지션들이 참여하여 공연을 한다고 하니 기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습에 더욱 매진할 생각이다. 또한 '끼리끼리 콘서트'도 기획 중이다. 우리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단독 공연을 하고 다른 회원은 관객이 되는 구조이다. 이 외에 네줄타기의 '외줄타기 콘서트'도 기획 중이다. 1인 콘서트로 시낭송도 곁들인다. 정기적으로 공연할 예정이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면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로 지친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하며 유튜브 업로드도 계획하고 있다. 대량의 정기공연은 10월 말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다른 팀들과 협연으로 공연을 진행했는데, 관객이 없어도 감동과 즐거움을 느낀 새로운 경험이었다. 작년보다 더 큰 위로와 치유가 되는 공연이 되길 바라본다.

시 민 의 예 술

마음을 치유하는 미술 놀이

글 사진 정원숙(시민의 예술 회원)



* 고양시 미술가가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시민의 예술' 모임은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미술가 6~7명의 소규모 모임이다. 회원들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양시, 인사동에서 개인전 및 단체전을 통해 활동한다. 이번에는 '테라코타와 미니포레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한데 뭉쳤다.

어느 젊은이가 도시로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교사시험을 준비하던 중 생활에 지쳐 고향으로 돌아온다. 4계절 자연에서 얻어지는 제철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리틀 포레스트에서 영감을 얻은 미니포레스트'는 자연에서 화분을 만들어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픈된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인근 주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다는 의견에 초록이 우거진 정발산공원 평상, 풍동 식골공원 정자 쉼터 그리고 정발산 행정복지센터 건물 옆 거리에서 진행 일정을 잡았다.

공기 좋고 시원한 공원 속 쉼터에서 흙 놀이! 이쯤 되면 여기가 바로 치유의 공방이며, 우리의 목적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장소 아닐까? 꽃종년 시니어, 딸과 함께한 모녀 그리고 청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였다.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코일링하여 흙을 말아 올리니 형태가 나오면서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완성된 화분은 각자 집으로 가져가서 갈라지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해 주며 응달에서 건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과정을 두 장소에서 한 번씩 더 반복하여 1차 화분 만들기 과정을 마무리했다.

그중 풍동 식골공원에서 만난 89세 할머니의 작업이 기억에 남는다. 공원에서 우리의 흙 놀이를 보시고 '재미있겠다~ 어쩜 저리 잘 만들어?' 하시며 적극 동참, 화분 하나를 똑딱 만드셨다. 강사님은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께 감동하여 오래오래 사시라는 의미로 장수의 상징 거북이를 만들어 화분에 예쁘게 붙여드렸다.

이제 우리의 미니포레스트는 2차 '해불가마'를 기다리고 있다. 완전건조가 확인되면 초벌구이 가마로 들어가야 비로소 화분이 완성된다. 여기에 다육이를 심어주면 테라코타와 미니포레스트' 완성! 앞으로 우리 '시민의 예술' 동아리는 '개인의 미술'만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공의 미술'에 더 집중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서양화, 한국화 수채화, 민화 등 다양한 분야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동참하여 흙을 만져보라고 권하고 싶다. 창작 활동의 즐거움과 마음의 치유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동

나누는 기쁨 함께해요

글 사진 안혜영(다만동 회원)



* 일산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경의선 일산역을 나와 일산전통시장의 시골벽적인 오일장이 열리는 좌판을 따라가다 보면 954세대 아파트가 있다. 봄 가을이면 주차장 한 켠에 어린이 풀리마켓도 열리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마주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웃이 그리워지는 요즘이다. 그래서 올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인이 모여 '다 함께 만드는 일산동양아파트' 일명 '다만동' 공동체로 주민 간의 소통을 높이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5월 19일에는 고양시자치공동체센터의 아파트공동체사업에 선정된 다만동 공동체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아파트 입주인 간 나눔 문화 확산과 소통을 위한 공동체 행사에 어르신들이 직접 나오셔서 다육이화분도 만들어주시고 하루 종일 애써주셨다. 작은 다육이화분으로 이웃 간의 따스함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 봉사자들 고생한다고 과일도 착즙해서 가져다주시고, 각종 음료수와 간식을 챙겨주는 이웃님의 따스한 정에 보기만 해도 배부른 하루였다.

멋진 행사에 일산1동 동장과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및 직원들, 도의원, 시의원이 참석했다. 또한, 직접 체험부스를 꾸며주신 '보드랑 놀자' 공동체와 일산1동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공동체 이웃들도 와서 응원을 해주었다.

요즘 코로나19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것 외엔 만나기도 어렵고 마스크 때문에 서로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해 이웃 간 거리가 더욱 멀어진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만동 공동체는 이웃과의 소통을 높이고 아파트 안에서의 풀리마켓, 동양당근마켓을 운영해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아파트 내에 공유캐비닛을 운영하는 꿈도 가지고 있다. 다음은 어떤 행사로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된다.



고양줍깅

조깅하면서 환경 지켜요

글 사진 이성광(고양줍깅 회원)



* 마두동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줍깅은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단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말한다. 마을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고양줍깅 공동체를 만들었다.

공동체는 지난 3~4월 고양누리길 5코스(행주산성역사누리길)를 찾았다. 5코스는 행주산성 대첩문을 시작으로 충의정 대첩비를 지나 인재개발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한강변의 아름다운 오솔길과 한강의 풍경을 볼 수 있다. 회원들은 행주산성역사누리길을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해 환경 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5월에는 고양누리길 8코스(경의누리길)에서 청소년 줍깅 행사를 진행했다. 누리길을 걸으며 호수공원 정발산 안 연못, 밤가시초가집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쓰레기를 수거했다.

고양줍깅은 쓰레기 줍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성원에게 재활용 교육도 진행했다. 플라스틱 조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영상 등을 시청했다. 장난감 분해수업에서는 장난감을 고무, 철, 니켈, 플라스틱, 스피커, 건전지, 전선 등으로 분해하여 재활용하는 과정을 실습해 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환경에 좋은 천연비누를 만들어 사용하고 일회용 포장 비닐을 사용하는 대신 손뜨개 장바구니 만들어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고양줍깅 공동체는 고양줍깅, 청소년 줍깅, 가족 줍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누구보다 환경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고양시 환경 지키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종일 님

글. 박다연(편집부) 사진. 주호상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감염병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놓았지만, 질병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 및 전문 인력들은 시민의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박종일(65) 님 역시 마찬가지. 공공의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현장에 뛰어든 그를 만나봤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며 얻게 된 일자리 기회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박종일 님은 올해 1월부터 일산서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에서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해오고 있다. 그가 지원한 분야는 고양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는 퇴직한 전문 인력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면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여 대상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퇴직한 전문 인력이며 업무 관련 3년 이상 경력을 가졌거나 국가 자격 등을 소유한 고양시민이어야 한다.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활동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고양시 생활임금(시간당 1만 140원)을 적용한 보수가 지급된다.

“퇴직 후 노인요양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간호 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요양원을 운영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 이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마침 시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한다. 오전에는 외부 선별진료소에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를 안내하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방법과 기준·검사방법, 능동감시대상자와 밀착접촉자 등의 정보를 안내한다. 다양한 업무 속에서 바쁠 법도 하건만, 그는 여유 있게 모든 일을 소화하고 있다. 보다 친절하게, 자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는 오늘도 현장을 바빠 오간다.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실버 코너는 큰 글씨로 표기합니다.



방역복을 착용하고 시민 안내에 나선 박종일 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것

하루 종일 다양한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주어진 일이 있고 스스로 이를 충실히 해낼 수 있음에 만족하고 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열심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어 준다.

“경력형 일자리 근로자로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이 업무의 가장 큰 장점 같아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된 데는 가족들의 응원도 큰 힘이 됐다.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그를 부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있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좀더 집중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이든 맡겨만 주시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 일자가 끝나면 다른 분야의 일자리에도 도전해보고 싶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나의 마지막 웰엔딩(Well-Ending)을 위한 장례문화

죽음은 세상 모든 사람의 현재 혹은 미래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죽음은 곧 삶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좀 더 소중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살아온 삶을 잘 정리하는 '웰엔딩'이 필요하다.

글: 편집부 자료출처: BRABO my life



주목받는 이색 장례문화

① 화비화장제

친환경 장묘법 중 하나로 화비화장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 스타트업 리컴포즈는 시신을 흙 속에서 급속히 분해시켜 화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화비화장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과 묘지가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② 드라이브스루 장례

미국의 장례식은 보통 친지들이 관에 담긴 영자를 찾아 조문하고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LA의 애덤스장례식장은 드라이브스루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조문객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조문을 한다.

③ 바다 화장장

수목장과 더불어 바다 화장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이는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으로 다른 장례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GPS 좌표를 기록하기 때문에 바다 성묘도 가능하다.


④ 우주 장례

미국에서는 우주선에 시신을 화장한 재를 함께 살아 쏘아 올려주는 서비스를 2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때마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 X'와 같은 상업용 우주 사업이 확장하면서 최근 연간 2~3회기량 우주선 발사에 재를 실어보내고 있다고 한다.

'장례식'이 아닌 '장례문화'로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유족에게 과한 짐을 지게 하는 각종 의식이나 형식이 주가 되어 정작 고인을 위한 애도나 추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맞물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장례식은 보다 간소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전에는 2일장이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엔 1·2일장이나 무빈소 장례와 같이 규모와 기간이 줄어든 장례를 선호한다. 천편일률적인 장례가 아닌, 가족 중심의 작은 장례로 변하면서 유족 중심의 장례문화에서 고인을 중심으로 한 깊은 추모로 장례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 시대가 바뀌면서 장묘문화도 바뀌고 장례의 규모나 일정, 조문 방식 등 여러 가지가 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장례문화의 본질은 그대로다.

새로운 장례문화 트렌드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로 '생전 장례식'이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장례식에 본인이 참석해 손님을 맞이하고 그간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의식이다. 장례식은 보통 사후에 진행되다 보니 고인의 뜻과 마음을 미처 전하지 못하고 떠나기 때문에 생전에 관계를 맺었던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보는 것이다. 살아 있을 때 하는 자신의 장례식인 셈이다. 생전 장례식에서는 검은 옷 대신 밝고 예쁜 옷을 입고 함께 즐겁게 어울리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다. 슬프거나 비통한 죽음이 아닌,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을 축하해주는 의미가 강하다. 결혼식처럼 장례식 식순도 짜보고, 초청할 사람도 미리 정해 보고, 신세 진 분에게는 살아 있을 때 만나 인사를 전하기도 한다. 또한, 요즘 화장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목장'이다. 이는 높아지는 화장비에 비해 관련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화장한 뒤 뿜겨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이다. 영국에서는 자연장(Natural Burial)이라고 부른다. 수목장용 나무를 영생목(永生木)이라고 하며 주로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등이 사용된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교육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지난 2019년 12월에 개관한 고양몽실학교놀이숲(이하 고양몽실학교)은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펼쳐나가는 곳이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중학교 동문회, 지역주민, 청소년 등은 당시부터 구 고양중 건물활용에 대해 고민한 끝에 청소년주도의 자치 배움터를 조성하기로 했고, 그렇게 고양몽실학교놀이숲이 탄생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제공 고양교육지원청



넓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다

현재 고양몽실학교가 있는 건물은 2014년까지 고양중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관련 기관들은 TF팀을 만들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러다 2018년 의정부몽실학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몽실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TF팀은 고양몽실학교, 고양에지숲, 고양몽실학교에지숲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몽실학교놀이숲'이란 이름을 택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 가르침의 느낌을 주는 '학교'가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꿈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개관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이 덮치며 고양몽실학교 프로젝트의 시작은 점점 늦춰졌지만, 공간이 마련되는 사이 2019년 초 고양교육청 사회의실 등에서는 고양지역 청소년들의 학생주도 프로젝트 6개가 시작됐다. 당시 총 30명의 학생들은 댄스, 분장, 사진·영상, 요리 등 6개의 미니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9년 하반기에는 총 100명의 학생들이 1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규모만큼이나 학생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프로젝트에도 무려 137명이 참가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간

고양몽실학교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원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몽실학생자치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몽실다방, 지역주민의 수다공간으로, 때로는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책읽기방과 책이야기방,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뮤지컬방, 드림으로 포스를 뽐내는데 음악방 등이 있고, 학생들만 사용 가능한 곳이 바로 청소년놀이숲이다.

특히, 건물 뒤편에 신축한 소극장은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형태와 우리 전통의 마당놀이를 합한 듯, 관객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한 편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실현되는 곳

고양몽실학교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몽실마을교사를 위촉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고, 학생주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해 몽실학생자치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몽다방(자치회가 운영하는 몽실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정책마켓 등 다른 몽실학교와의 연합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드림그라운드, 드론 등의 진로 연계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 학생주도 프로젝트에는 140여 명이 참여하여 총 26개 팀을 구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창작활동을 통한 세상 관찰, 놀이 만들기, 실내건축물 만들기, 디자인, 민화 그리기, 네일아트, 식물 재배, 음악 및 영상 제작, 요리 봉사활동 등의 주제를 통해 학교 교육과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몸소 체험해나갈 계획이다.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위치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3
운영시간 화-금 10:00~20:00 토 10:00~16:00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일반인 대상 개방 예정
문의 02-381-4580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마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단'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마두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이고 건강한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1월 개관한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마두청소년수련관에는 환경, 여행, 봉사, 건강, 여가 등의 다양한 주제로 오직 청소년만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들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마두청소년수련관의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활동하는 '청소년사업단(활동단)'을 소개하고자 한다.

출처: 사진: 이슬(마두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고양시 마두청소년수련관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이용대상 만 9~24세 청소년

이용시간 월요일~일요일(9:00~18:00)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휴관, 공휴일 휴관

홈페이지 <https://www.goyf.or.kr/md/>

대표번호 031-995-4160

청소년사업단(활동단)

※ 청소년사업단은 마두청소년수련관에서 매년 연중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청소년 주도 기획 활동이다. 마두청소년수련관은 '공정무역, 안전문화, 평화의교, 축제기획, 역사, 사회참여, 진로지원' 등 총 7개의 주제로 사업단(활동단)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

공정무역사업단 'FEFE'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사업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국제화에 앞장서며 다양한 영어자능기부활동도 진행한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4명(만 14~18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공정무역 워크숍 진행 및 소양교육 이수 -공정무역 캠페인 및 체험부스 운영 -도래친구들과 함께하는 공정무역 봉사활동 기획-운영 -한-영 공정무역 이야기 동화책 발행 및 배포 등
문의	청소년지도사남윤아(031-995-4153)

안전문화활동단 'Volun Up'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 속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사업단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3명(만 14~18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안전문화 워크숍 및 소양교육 이수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체험부스 운영 -도래친구들과 함께하는 안전 봉사활동 기획-운영 -안전신문고, 안전 체인지메이커 활동
문의	청소년지도사남윤아(031-995-4153)

평화의교단 'P.M.'

청소년이 평화를 주제로 개인, 지역, 국가로 하는 지도자 교육 이수를 통해 봉사활동, 캠페인, 대회, 콘퍼런스 등을 기획-운영하는 청소년사업단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5명(만 13~24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청소년평화 도래지도자양성교육 이수 -평화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평화통일 기업 만들기 대회 기획 및 운영 -평화 콘퍼런스(발표 및 토론) 기획 및 운영
문의	청소년지도사이슬(031-995-4156)

청소년축제기획단 '비상구'

청소년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고양시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행사 기획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사업단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5명(14~19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고양시청소년어울림마당 연간 기획 및 운영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 기획 및 운영 -청소년 문화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홍보
문의	청소년지도사이슬아(031-995-4154)

청소년역사단 '메올길'

청소년의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역사 인식개선을 위한 청소년 역사 참여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청소년사업단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0명(17~24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청소년 역사참여활동 주제적 운영 -콘텐츠 개발, 캠페인, 멘토링 등 활동 기획 및 운영
문의	청소년지도사 조승일(031-995-4152)

청소년사회참여단 '햇소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내에서 청소년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청소년사업단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3명(14~19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사회참여 프로젝트 기획 및 활동 -모의선거 및 리더십역량강진 활동 -리액션(Leader-Action) 기획 및 운영
문의	청소년지도사 이지원(031-995-4157)

청소년지원단 '아띠'

관내 학교와 연계한 '말해, 드림' 진로 멘토링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청소년지원단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22명(만 19~24세의 후기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고양시 관내 학교 말해, 드림 온-오프라인 멘토링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유튜브 영상, SNS 등) -미니프로젝트(부스 운영 또는 희망활동 기획 운영) -동아리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이수 등
문의	청소년지도사 이진솔(031-995-4155)

청소년운영위원회 'MY 그린별'

※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마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대표로 시설과 지역사회에 의견을 제언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구분	내용
활동대상	19명(만 13~24세의 청소년 활동 중)
주요활동 내용	-수련관 시설 프로그램 행사 모니터링 -상 하반기기관장 간담회 -환경 프로젝트 등 청소년활동 기획 및 운영
문의	청소년지도사 이슬아(031-995-4154)

이제는 생활을 '구독'하는 시대! 구독서비스의 모든 것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독서비스'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구독'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침마다 배달되던 녹즙이나 우유 등도 구독서비스의 한 예다.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다양한 제품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구독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부 자료출처 B Journal Somerend

기업과 소비자의 윈-윈

우유나 신문 등 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구독 비즈니스가 넷플릭스가 물고 온 열풍을 타고 유통·소비재, 미디어 콘텐츠 게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전 방위적인 산업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구독서비스 제품군이 한정적이었던 유통업계가 최근 그 영역을 과자, 제철 주류, 과일 등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커피 구독, '고기 구독', '술 구독', '방 구독' 등의 서비스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구독서비스는 근본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장기적인 관계를 약속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비자는 저렴한 금액으로 원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이를 통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고 있는 요즘 외출하지 않아도 누구를 만나지 않아도 집 앞까지 배송되어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언택트 시대의 니즈를 충족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알아두면 편리한 구독서비스들

1. 커피덕후를 실레게 하는 커피 구독

비싼 현대인들에게 필수 음료로 자리잡은 커피. 이를 겨냥해 많은 기업에서는 원두 및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별루보틀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원두, 중량 등을 맞춤형으로 일정 주기에 따라 배송하고 있으며 프린츠커피에서도 '커피클럽'이라는 구독서비스를 실시. 원두뿐만 아니라 콜드브루, 드립백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2. 집안일도 구독서비스로 해결 '빨래 구독'

일상생활에서 가장 귀찮음을 많이 느끼는 집안일 중 빨래를 해결해주는 구독서비스도 있다. '렌드리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빨래수거함 렌드렛을 임대받을 수 있는데 렌드렛에 안심고리를 연결하면 세탁물의 도난과 분실을 막을 수도 있다. 밤 11시 전에 빨래를 렌드렛에 넣고 앱으로 수거요청을 하면, 다음 날 세탁된 빨래가 배송된다. 원하는 서비스의 범위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3. 건강까지 챙겨주는 '영양제 구독'

우리가 매일 흔하게 접하는 영양제를 맞춤형으로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필리는' 건강과 관련된 온라인 질문을 실시한 후, 소비자의 답변을 반영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매달 정기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영양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만, 정작 지금 자신에게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모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내 반려동물을 위한 '펫용품 구독'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용품 관련 구독서비스도 등장했다. 장난감을 포함한 플레이키트, 다양한 간식, 반려동물 생활용품 펫 가전 그리고 반려동물을 위한 화식(불에 익힌 음식)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가족 개념이 강화되면서 보험상품 건강 문진 등을 추천하는 서비스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의 문화행사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연기·취소될 수 있습니다

고양아람누리

2021 새라새ON시리즈
〈윤석철 트리오 LIVE 21.7MHz〉



일시 7. 2(금) 오후 8시, 7. 3(토) 오후 7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3만 원

새라새ON시리즈를 통해 세 번째 만나게 될 아티스트 윤석철은 감각적이면서도 지적인 연주로 한국 재즈 신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로 손꼽힌다. 더불어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멘트로 팬들과 교감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이번 공연은 심야의 라디오 방송처럼 무대 위 연주자와 객석의 관객이 친밀하게 교감하는 콘셉트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2021 상주단체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프로그램 연극 〈나와 할아버지〉



일시 7. 16(금) 오후 8시, 7. 17(토) 오후 2시,
오후 5시, 7. 18(일) 오후 3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3만 원

연극 〈나와 할아버지〉는 작연출을 맡은 민준호가 실제로 자신과 할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하여 쓴 연극으로, 공연배달서비스 간다 특유의 반짝이는 재치와 재기발랄한 유머가 가득하다. 미니멀한 무대 위에서 리얼리티 가득한 대사들과 함께 한 편의 수필처럼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놓는 준호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삶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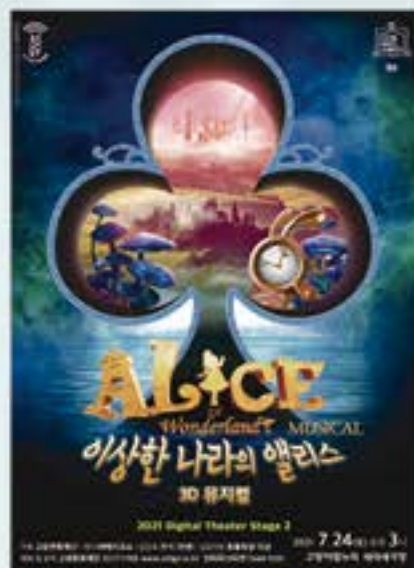
2021 아람누리 오페라 콘서트 시리즈 II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순정〉



일시 7. 24(토) 오후 4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1층 4만 원, 2층 3만 원

사랑의 묘약(L'elisir d'amore)은 가에타노 도니제티(Gaetano Donizetti)가 펠리체 로마니(Felice Romani)의 대본을 바탕으로 작곡한 2막짜리 오페라이다. 국내 정상의 오페라 가수와 전문연출가 이의주의 해설을 곁들여 멋과 맛을 한층 끌어올린 힐링형 오페라 콘서트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과 함께 한여름 문화휴가를 즐겨보자.

2021 디지털-씨어터 스테이지
3D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일시 7. 24(토) 오후 3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1만 원

루이스 캐럴의 원작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1865』의 신비로운 모험을 몰입형 가상환경기술(VET)과 융합한 실감 나는 공연이다. 이해하기 쉬운 스토리를 바탕으로 자체개발한 나인 홀로그램 시스템(3D 안경 없이 3D 구현)기술과 인터랙티브 가상배우시스템을 활용하여 몰입감을 주고, 실제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공상의 세계를 3D 영상으로 구현하여 생생하게 전달해줄 것이다.

2021 한문연 방방곡곡 문화공감
박정자의 노래대화극 〈노래처럼 말해줘〉



일시 7. 31(토) 오후 3시, 6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입장료 전석 3만 5천 원

박정자가 2020년 2월 예술의전당에서 펼친 베르네스 〈노래처럼 말해줘〉를 보고 느낀 조동희의 질문들과 그로부터 연결되는 세대를 뛰어넘은 두 여자의 노래대화극 〈노래처럼 말해줘〉.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엄마이자 여성 아티스트인 조동희의 질문과 노래, 연료와 높은 예술적 성취를 갖춘 박정자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비롯된 시낭송과 개인적인 대답들로 관객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달한다.

고양어울림누리

2021 아침음악나들이 보컬리스트
특집 시즌6 II 〈정동하〉



일시 7. 22(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입장료 전석 2만 5천 원

2005년 우리나라 밴드의 중심 '부활'의 9대 보컬로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정동하는 2014년 솔로 전향 후 드라마 OST, 음악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DJ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올해 발매한 신곡 '추억은 만남보다 이별에 남아가 높은 순위로 진입하면서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킨 정동하의 강렬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를 만나볼 수 있다.

#1

고양시 시승격 30주년 및 고양특례시 원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접수기간 7. 1.(목)~7. 16.(금)

참여대상 누구나(지역 및 연령 등 제한 없음)

신청자별 출품작 2개 한정

공모주제 고양시 시승격 30주년과 특례시 원년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20자 내외)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nak1206@koreakr) 마감일 18일까지

접수에 한함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고양시정 홈페이지 세션에서 다운로드

기타사항 공모전에 신청하는 메일임을 알 수 있도록 메일제목 규정 준수

※[이메일제목 예시] 고양시 시승격 30주년 슬로건 공모전 참가자 이름

결과발표 8월 중 ※ 고양시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문의 고양시 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기획팀(031-8075-2778)

#2

2021 고양우수작가공모전 고양아티스트 365

고양아티스트 365는 고양시에서 예술창작활동을 하는 우수 작가를 선정하여 개인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전시장소	고양아름누리 갤러리누리 제3전시장
전시기간	7. 1.~7. 11. 방성욱
	7. 15.~7. 25. 류희수
	7. 29.~8. 8. 김철환
	8. 12.~8. 22. 이송희
	8. 26.~9. 5. 홍현주
	9. 9.~9. 19. 최성운
	9. 23.~10. 3. 유규선
	10. 7.~10. 17. 심봉민
	10. 21.~10. 31. 김시영
	11. 4.~11. 14. 김승호
관람시간	화~일요일 10:00~18:00

문의 고양문화재단(1577-7766, www.artgy.or.kr)

#3

2021 고양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신청기간 연장

신청기간 7. 30.(금)까지

지원내용 건물보강공사비 지원, 착한상가 현판 교부

문의 고양시민지원센터(031-909-9000)

#4

제10회 강연콘테스트 개최

강연주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강연내용 민주주의, 주권, 선거-정치 참여의 중요성 및 정책제안,

18세 새내기 유권자선거 정치참여 등

참가대상

구분	대상	공통사항
청소년부	중·고등학생 및 동 연령대 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포함
일반부	대한민국 유권자 누구나 (대학생 포함)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 가능 (동시 참가 불가)

참가신청

-신청기간: 7. 30.(금)까지

-신청방법: 선거연수원 홈페이지(www.dvicedu.gov.kr)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①참가신청서(강연내용 요약서 포함) ②강연 동영상

③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④서약서

대회일정

구분	일시	장소	내용
예선	8. 4.(수)~8. 5.(목)	선거연수원	-동영상 심사 및 본선 진출자 결정
본선	9. 11.(토)		-강연발표(10분 이내) 및 심사 -결선 진출자 결정 및 시상 (장려상, 특별상)
결선	10. 30.(토)		-강연발표(10분 이내) 및 심사 -순위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결정 및 시상

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031-296-9831~9833)

※ 자세한 사항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s://www.dvicedu.gov.kr) 참조

#5

2021 시민기록물 공모전 안내

공모기간 8. 31.(화)까지

참가자격 전 국민 누구나

공모내용 고양시의 추억이 담긴 문헌, 사진, 영상, 생활용품 등 민간 기록물 기증 및 대여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본관 1층 행정지원과 정보공개팀(업무시간 09:00~18:00)

-이메일: nak@koreakr

발표 2021년 9월 중

※ 신청하여 한해 감사장 또는 상장 수여(10월 중 고양시공공결과에 전시예정)

문의 고양시 행정지원과 정보공개팀

(031-8075-2191/031-8075-2188)

#6

고양관광정보센터로 떠나는 고양옥탑방 영화여행

대상 고양시민 ※선착순 20명

일시 매일 넷째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장소 고양관광정보센터 옥탑방

관람료 무료

일정 및 상영작

일정	상영작	비고
7. 24.(토)	리틀포레스트	전체관람가
8. 28.(토)	모아나	전체관람가
9. 25.(토)	주토피아	전체관람가
10. 23.(토)	인사성	12세 관람가
11. 27.(토)	그린북	12세 관람가
12. 25.(토)	라라랜드	12세 관람가

예약 고양관광정보센터 인스타그램 goyang_kc

문의 고양관광정보센터(031-8075-3003)

※ 가평 및 일몰 상황에 따라 일정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7

아이돌봄서비스 감사 이벤트

기간 2021. 9월까지

대상 기본형+종합형 돌봄서비스 각각 1회 이용 아동(4개월~13세)

구분	내용	요금
기본형 서비스	돌하원보조, 임시보육, 놀이활동 등	(7월) 1506원~ (12월) 10040원
종합형 서비스	(이동관련) 세탁, 청소, 음식 1회	(7월) 4516원~ (12월) 13,050원

감사선물 ① 카카오톡명+거꾸로우산 ② 카카오톡 보냉담뽕러

③ LCD전자보드

※ 감사선물은 아동당 1, 2, 3 중 선택하여 연명 증정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일괄 배송

문의 고양시 아이돌봄지원사업팀(031-969-4064/4028)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idobom.go.kr)

#8

성인문해교육 '은빛새롬학교' 참여자 모집

모집기간 7. 31.(금)까지 상시모집

모집대상 20세 이상 비문해성인

내용

학급	활동 시간	추가 모집 인원	이용료	공통사항
매화반 (초등국어 1학년 수준)	월~목 10:00~12:00 (주 2회)	2명	무료	한글 기초, 낱말의 뜻 및 활용 이해하고 읽고 쓰기
국화반 (초등국어 2-3학년 수준)	월~금 10:00~12:00 (주 3회)	2명		문단, 장문의 글 읽고 쓰기

※ 세부 일정은 추후 참여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

장소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 내 프로그램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문의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070-8693-2273)

시청·유관기관 정보 2

도서관 정보

의정소식 / 건강상식

#9

28청춘창업소 입주 지원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7. 14(수)까지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1981년 6월 출생자)
- 창업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일(사업등록일 기준)로부터 3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
- 예비 창업자의 경우, 28청춘창업소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양시(28청춘창업소) 사업자등록 가능자

지원내용

- 독립형 또는 공동형 사무공간, 공용공간 및 편의시설
-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 특강 등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skk3.28@gpa.or.kr)

입주문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031-968-7062)

#10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SUMMER FESTIVAL! [방구석 워터파크]

대상 고양시 영유아가정 아빠

일시 7.19(월) 18:30~19:20

내용 아빠교육에 참여하고 물놀이키트 받아 놀이해보세요

방법 YOUTUBE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관람→물놀이 키트발송
→활동사진 업로드(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방구석워터파크)
→소정의 상품(스마트폰 보관함) 증정

신청기간 7. 5(월)~선착순 마감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75-3314)

#11

놀이지도 프로그램 신청 안내

대상 고양시 내미취학 영유아가정의 부모님 및 양육자

일정

- 놀이지도 상담 및 양육전화상담: 매월 주 2회 14시~17시 유선상담
- 놀이지도 부모교육(유튜브 동영상): 매월 주 1회 10시~17시 자유시청
- 놀이지도 1:1 체험프로그램(실시간 ZOOM): 매월 주 1회 10시~11시

신청기간 상시

신청방법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edchild.or.kr)

→영유아부모지원→프로그램 안내 및 신청

문의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031-975-3314)

#12

경기인력개발원 국비지원 취업연계 교육생 모집

모집과정

교육과정명	정원	교육기간	교육생특전
(차산업) 지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실무*4	24	7.12~12.31 (5개월)	
(차산업) 능동형 보안시스템개발실무	25	7.14~12.31 (5개월)	- 교육비 전액 국비 무료 - 가족사 및 식사 무료 제공 -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지원
(가업승계) 제품설계제작(CAD/CAM) 실무전문가	25	7.15~22.5.13 (9개월)	- 첨단장비 활용형 산업체 중심 교육훈련 - 우수기업에 취업 지원
전기타당광 발전시스템*4	30	7.15~22.5.13 (9개월)	- 취업 후 사후관리(5개월)
(산업용로봇제어) 자동화시스템제어	30	7.15~22.5.13 (9개월)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

(경기도 파주시와석순환로172번길 16 (운정신도시 내))

대상 만 15세 이상 취업희망자(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자)

접수방법 경기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

(https://gkcochamrd.net/)

상담 및 문의 경기인력개발원(031-940-6800)/ 카카오톡: kg6800

#13

2021 고양 웹툰 공모전 안내

공모기간 8.17(화)까지

공모부분

부문	주제	규격 및 분량	응모자격
부문1	전 연령대상 자유주제	- 스크롤 방식 - 50컷 이상	전국의 웹툰 산인 누구나 ※미대위자 데뷔 3년 이하인 자
부문2	고양시 승격 30주년 (특례신원년) 기념주제	- 자유방식 (스크롤, 컷툰 무관) - 10컷 내외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www.spectorynet/gpa/gywebtoon/2021/1)

사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총 16명/총상금 3,000만 원

- 특전: [부문1] 웹툰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웹툰 기획·작품 퍼드백

- 특전: [부문2, 2 공통] 고양웹툰전 작품 전시

* 2021 고양웹툰전: 10. 1(금)~10. 3(일) 고양어린이박물관

문의사항: 2021 고양 웹툰 공모전 운영 사무국

- 전화: 02-6953-1410/이메일: gywebtoon@contestweb.net

- 카카오톡(플러스트친구): @고양웹툰공모전

*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세션서 참조

#14

고양시민 아이스팩 모으기

고양시민회와 주업커뮤니티센터에서는 기후위기와 환경보호를 위하여 아이스팩 모으기를 합니다. 아이스팩은 소상공인에게 전달되어 재 활용됩니다.

기간 6. 19(토)~8. 14(토) 매주 토요일 14:00~17:00

장소 주업커뮤니티센터 하늘마당 야외무대

* 테이블 옆에 해동된 얼 아이스팩을 가져와주세요.

* 아이스팩과 교환되는 물품은 없습니다.

문의 주업커뮤니티센터(031-913-0700)

#15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국비지원 프로그램 안내

여성가족부·고양시 지원 직업교육훈련* 수강료 무료

-호텔 객실 코디네이터 양성과정(15명): 7. 20~9. 6

* 신청기간: 7.11(일)까지

-빅데이터 활용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마케팅(22명): 7. 21~11. 8

* 신청기간: 7. 13(화)까지

-취업창업컨설팅트과정(18명): 8. 17~11. 19 * 신청기간: 8. 4(수)까지

[고용노동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

-세무회계: 전산회계1급, 전산세무 2급

-사무행정: ITQ자격증 취득, 컴퓨터활용능력 2급

-전자상거래: 온라인쇼핑몰 판매장성 전자상거래 퍼포먼스 마케팅

-디자인: 온라인쇼핑몰 판매장성, 전자상거래 퍼포먼스 마케팅

-커피관리: 커피바리스타 2급, 커피바리스타 1급

* HRD-Net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필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모집]

-맞춤형 1: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수당 지급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교육장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대화본원(대학역 6번 출구, 도보 2분)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www.kycenter.or.kr)

문의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031-912-8555/교육: 내선1, 국회: 내선30)

#16

2021 성폭력피해경험자 치유회복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강의 나뉘는 만남의 사진수업 * 강사 해영

프로그램

- 개인상담 7월(3회기) 10월(3회기)
- 사진수업 8. 3.(화)-9. 3.(금) 10회기 16:00~18:00
- 사진전시 9. 15.(수)-9. 30.(목) 덕양구청 갤러리룸

일정 2021. 7월~12월

신청기간 7. 17.(목)까지

장소 고양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대상 성인여성(8인) 참가비 무료

문의·신청 고양성폭력상담소(031-907-1368)

이메일(031.91.91366@hanmail.net)

#17

해피월드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마음아름바자회

이번 바자회상품은 (주)디마필에서 기증해주셨으며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사회 97%가정 지원금으로 전액(100%)사용됩니다.

판매물품 디마필 기초 화장품 세트(30,000원) 등

(QR코드 접속시 다양한 상품확인 가능)

행사기간 7. 30.(금)까지

주문방법 QR코드 접속 후 온라인주문(전화주문 가능)

상품수령 복지관 방문 직접 수령 및 결제현금 결제

* 상세한 내용은 주문지에 한하여 별도 공지

문의 고양시태양노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과(031-810-2331~6)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다양한 상품확인
주문접수가 가능합니다

#18

2021 고양시 인권작품 공모전

접수기간 7. 20.(화)까지

응모자격 인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개인 혹은 팀 3인 이내)

공모분야 포스터, 짧은 동영상, 수필

공모주제

희بة과 포용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인권

- 학교, 직장, 온라인 등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인권 증진 사례
-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 문제
- 내가 겪은 차별 이야기

제출서류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 작품, 공모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포함)

및 서약서

접수방법 이메일(sral@komak)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된 작품만 인정

출품수량 개인(팀)당 부문별 2개 작품 이내

* 2편 접수시 작품마다 각각 따로 접수, 접수서류 일체 별도 제출

* 팀 응모시에도 상금은 동일

수상작 발표 2021. 8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수상자 개별통지

시상내용 고양시장 명의 상장 및 시상금 지급

시상내역 3개 부문, 총 30명(팀), 총 500만 원

문의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인권팀(031-8075-2167)

#19

[적은 날개짓 하나가 만드는 내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일시 7. 11.(일)까지

내용 오픈마켓, 대형종합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

온·오프라인 합인행사

홈페이지 <https://ksale.org/>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국번 없이)1357

#20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기간

-온라인 조사: 7. 9.(금)까지 * 인터넷(PC, 모바일) 참여 가능

-방문면접 조사: 7. 30.(금)까지

조사대상

2020. 12. 31일 기준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전국의 사업체

-대면조사: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비대면조사: 인터넷(PC, 모바일),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조사

*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조사표를 직접입력

경제총조사 홈페이지 www.ecensus.go.kr

#21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모교육 특강 진행

일정 7. 13.(화) 10:00~12:00

* 접수기간 7. 9.(금)까지

내용 우리 아이 행복한 두뇌 만들기 두뇌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대상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강사 홍양표 박사(라더스브레인)

참가비 무료

참여방법 실시간 온라인 교육(ZOOM)

신청방법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goyangfamilynet.or.kr) 접수

문의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교육팀(031-969-4041)

#22

2022년 공동주택 도시녹화 보조금 지원 사업 모집 안내

접수기간 7. 1.(목)~7. 26.(월)

신청대상 단지내 유류지 등에 조경녹화를 계획 중인 (관심 있는)

공동주택

신청방법 고양시청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방문 및 동기우편

이메일(jungmin92@komak)

* 주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41 동남빌딩 2층 녹지과

* 동기우편의 경우 7. 26. 자소인까지 유류, 토 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

사업기간 2022. 1월~2022. 12월

사업내용 공동주택 내 유류지 등에 신규 녹화 조성(조경) 지원

(최대 50% 지원)

지원항목

- 단지 내 신규 조경 녹화 조성 사업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지원

- (선택) 조경 사업 추진 시기 공동주택 무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최대 3회 1개소)

- (필수) 고양시와 해당 공동주택과 녹화계약(5년간) 체결을 통해

해당 사업자를 시에서 유지관리 지원

지원금액 지원대상 공사 순공사비(부가세 제외)의 50% 이내

(최대 5천만 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 도시공원 위원회심의(2021. 9월 말 예정)

- 보조금 심사위원회심의(2021. 11월 말 예정)

결과발표 개별우편통보(2021. 11월 말 예정)

문의 고양시청 녹지과(031-8075-4382)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또는 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 <http://act.goyang.go.kr>을 참조

2021 안녕, 책꾸러미

'안녕, 책꾸러미'는 어린이책 읽는 사서들의 모임 '어린이 도서관발굴단(어린이 도발단)'이 추천하는 연령별 책꾸러미 서비스이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더 쉽고 편하게 권하기 위해 고안해낸 서비스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글 사진 장미선(별문 도서관 사서)



좋은 책을 권하고 싶은 마음

오늘도 도서관 사서는 어린이 자료실에 들어서는 이용자를 조심스레 관찰한다. 읽을 책을 스스로 고를 만큼 자란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자~ 오늘은 어떤 학습만화를 먼저 읽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책이 놓인 서가 자리까지 훑히 꿰뚫어 우선 살피고, 부모님은 학습에 도움이 되면서도 읽기 싫다 소리 안 할 만큼 재미까지 놓치지 않은 책이 어디 숨어있을까 고심하여 고른다.

'이 책 너무 재밌는데 좀 빌려 가시면 어때요?'라든가 '그건 그림책이지만 그렇게 어린애가 읽기엔 너무 심오해요'라며 한마디 건네 책을 고르는 분의 수고를 거두고 싶지만, 사서가 언제나 자료실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스스로없이 다가가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때론 좋은 어린이책을 지나치는 이용자를 보는 사서의 마음은 조금 급하다. '이 책은 아이가 더 자라면 그림만 많고 글이 적다며 금세 훑 보고 치워버리거나, 동생들이보는 책이라며 안보려 할 텐데...' 혹은 '이 책은 이야기와 그림이 따뜻해서 좋고, 이 책은 색감이 너무나 환상적이고, 이 책은 반독이는 재치가 있어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다.

어린이책은 성인책과는 다르게 성장 단계별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시기가 있다. 물론 좋은 그림책은 글로도, 그림 자체로도 전 연령대가 즐기는 추세이지만,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한들 글을 줄줄 읽는 초등 고학년의 아이가 유아 그림책을 즐기게 되는 경우는 적다.



좋은 어린이책을 추천하는 사서들

2018년 가을 이런 마음과 마음이 모여 좋은 어린이책을 더욱 쉽고 편하게 권하는 방법을 고심하는 고양시 사서 7명이 머리를 맞대었고 '안녕, 책꾸러미' 서비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익히 널리 알려진 책이나 문학상 수상으로 누구나 접하기 쉬운 책보다는 작년과 올해 출판된 도서 중 최대한 많은 책을 여러 사서가 직접 읽어보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선정하기로 했다.

올해는 13명의 사서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여섯 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6세부터 13세까지 연령대별 4단계의 책꾸러미와 부모를 위한 그림책까지 총 110권을 선정하였다.

도서관에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많은 어린이 책을 읽은 적이 없다며 읽어야 할 책 수에 대한 방대함을 이야기하기도, 선정된 책들을 보고 있자니 호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은근히 지어지는 미소도, 어린이들이 우리 같이 재미있게 읽어줄지에 대한 우려 섞인 실연도 있었다.

고양시 사서가 권하는 어린이책 대출 서비스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 좋은 책을 함께 읽고픈 소박한 마음이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닿기를 바라며... 올해도 인사해 본다. 안녕, 책꾸러미

책꾸러미

어린이도서관발굴단(어린이도발단)이 직접 읽고 추천하는 연령별 도서꾸러미

대상 6세~13세 부모

이용 한 명당 1꾸러미(5권) 14일 대출

반납 책꾸러미를 빌린 도서관의 어린이자료실로 직접 반납

※ 어린이도발단의 추천 도서는 고양시 도서관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의정소식



고양시의회,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5차 회의 참석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5월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5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인사운영 방안과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추진 로드맵 등 특례시의회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이어진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의 발굴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2022년 특례시의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의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특례시의회 지위에 맞는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특례시 의장단과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전폭 지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은 6월 2일 열린 제25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고양시 유치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 유치되어 경기북부 신 성장 거점 마련을 통한 경기 남,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고양시가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발의되었다.

이길용 의장을 포함한 고양시의원 전원은 "고양시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이자 향후 경기 북부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여 경기도 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고양시의회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동력을 가할 수 있는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이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상식

외식주의보 A형간염을 조심하세요!

최근 5년간 A형간염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 해 평균 6,000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전문가에 따르면 A형간염은 만성 감염은 없으나, 감염된 환자의 15%는 1년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한다. 아차 하는 사이 감염되기 쉬운 질병 A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처 질병관리청

A형간염이란?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어 감염되는 급성간염 질환으로, 20~40대가 전체 환자의 70~80%를 차지한다.

A형간염 전파경로

- A형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 섭취
- A형간염 환자의 분변을 통한 경구 감염
- 주사기를 통한 감염,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 성접촉을 통한 감염

A형간염 증상

- 고열, 복통
- 권태감, 식욕부진
- 황달
- 암갈색 소변

* 6세미만의 소아는 무증상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지만, 허약, 비만, 면역력 저하, 저체중 등 영양장애를 초래

A형간염 전파기간

잠복기	15~50일로, 평균 28일
초기	발열, 두통, 피로감 등 증상 발현
전염	증상 발현 2주전부터 황달 발생 후 1주까지 바이러스 배출,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

A형간염 예방수칙

- 조개류 익혀 먹기
- 안전한 물 마시기
-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껍질 벗겨 먹기
- 20~40대는 예방접종받기 *1980년 이전 출생자는 항체검사를 하여 접종
- 최근 2주 이내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고양시 새벽시장 운영
"호수장터"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판매

2021. 4. 24 ~ 11. 28
매주 토·일요일 오전 6~9시
일산 호수공원 고양꽃전시관 측면 광장
(호수공원 제3주차장 인근)
※ 우천시 미 운영합니다

주최 : 고양시 | 고양국제꽃박람회
주관 :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장터협의회

고양시민 및 소식지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에
더 귀기울이겠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예·체험수가 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작성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

6	월	호	독	자	후	기
---	---	---	---	---	---	---



정제아(고양시 덕양구)

문화관광해설사 인터뷰 중 관광객에게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주는 '에듀테인먼트'라는 글이 외닿았습니다. 서오릉, 서삼릉을 자주 방문하는데 해설사님 덕분에 알찬 관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효선(고양시 일산서구)

전철에서 이동하면서 타블로이드판으로 만든 정책언박싱을 읽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한눈에 고양시가 보였습니다.

6	월	호	정	책	퀴	즈	당	참	자
---	---	---	---	---	---	---	---	---	---

변금환, 이희영, 이선희, 허미혜

1. 제4차국 가발도망가계(인)공정회를 개최했는데 이 가계(인)에 고장 시건의 사람이 모두 포함됐다 노선
별도 노선 ▲고양이형선 ▲○○○○○일선서구 연정 ▲일산선금로 연정 ▲신봉당선 서북부 심송 연정
▲대정당대선이 발표되었고 ▲조리금존선(통일로선) ▲교외 선은 추가 검토사업으로 리스트에 올랐다.
2. 고양시○○○○○○○○ 등로국 지원사업은 올해 2학기부터 본안부담 등로국에 대해 연금150만 원의 범위내
에서 기존생활수급자100% 지원, 차상위 한부모대학생, 기혼중위소득 200% 이
하의 장애대학생과셋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모든 대학생에게본
인 부담금의50%를 지원한디소 특수수에 상관없이누구나이용할 수있
으며, 간식비한 부담금전 원다
- 

정답: 인천2호선 대학생 본인부담



그대 만나러 가는 날 김세정(고양시 일산동구)

그대 만나러 가는 날
아름다운 아지랑이 불꽃으로
둥그라미 그리며
나비처럼 사뿐사뿐 차려임고
노래하며 감개요

햇살이 좋은 날에
오래된 표주박 기타와 함께
여섯 줄 모두 손가락 마법을 실어
노래하며 갑게요.

저 하늘 하얀 물계구를 위에도
천란한 그대의 미소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파니니를
달았어요.
그대여,
영원히 멈추지 않는
나의 고향곡을 만들어
라라리오 라라리오 노래하며
감개요.

어느 날 거리에서 팝콘처럼 사랑한다
고백하는 꿈을 꿔요.
그대여, 놀라지 말아요
한 장의 꽃잎처럼
부드러운 노래로 다가갈게요.

그대 만나러 가는 날
아름다운 시인처럼
온유가 가득한 아다치오로
노래하며 갑게요.



정책 QUIZ

정답을 맞춰보세요!

아래 퀴즈를 풀고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고양소식 7월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고양시는 올해 7월 □□□□□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정책과로 영수증을 접수하면 10만 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2.

고양의 대표 명소인 일산호수공원 □□□□가 자연친화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새로 조성된 인공폭포는 폭 88m, 높이 4.8m~8.5m이고 주 폭포 3개소와 2단 폭포 2개, 계류(시냇물) 2개로 조성됐다.

정답 : □□□□□. □□□□□

(#1. 힌트: 고양소식 p.4~5 / #2. 힌트: 고양소식 p.12~13)

참여 기간

7월 20일(화)까지

신청

엽서, 이메일(gysosic@korea.kr)

당첨자 발표

고양소식 8월호에 기재



고양고양이의 새얼굴을 찾아주세요!

고양고양이 캐릭터 리뉴얼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9.(월) ~ 8. 20.(금)(12일간)

공모자격 및 주제

누구나 참가가능 / 1인(팀) 1작품 응모

주 제 : 고양시의 정체성·상징성을 담은 고양고양이

제작방향 : 기존 고양고양이 캐릭터에 고양시와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담고, 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변형·리뉴얼한 디자인 또는 기존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컨셉 스토리가 있는 고양고양이 디자인

접수방법

접 수 : 이메일 jeemin0927@korea.kr로 제출

파일명 : '고양고양이 캐릭터 리뉴얼 공모전 참가자 이름'

문 의 : 고양시청 언론홍보담당관 (☎031-8075-2107)

일정 및 시상내역

공고기간 : 2021. 6. 21.(월) ~ 8. 20.(금)

결과발표 : 2021. 9. 8.(수) 예정 * 수상자 개별통보

시 상 식 : 2021. 9월 중

시상내역 : 총 10명(팀), 500만원 시상

구분	시상자수	시상금
대상	1명(팀)	200만원
최우수상	1명(팀)	100만원
우수상	3명(팀)	50만원
장려상	5명(팀)	10만원

* 상금에 대한 계좌이체금리는 수상자 본인 부담, 세금 공제 후 지급

제출서류

제출서류 : 출품신청서(캐릭터 설명 포함),

캐릭터 디자인 6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1부

제출형식 : 캐릭터 디자인(대표시안(앞, 뒤, 옆) 3개)

(용융동작 3개) 총 6개 이미지 파일

jpg/jpeg/png로 제출

* 수상작은 추후 원본파일(ai 등) 제출